

# 가족포교 가장 취약... 원력 有·방법 無

## 조계종 포교연구실 '2009 수도권 사찰 포교역량조사 세미나' 서 드러나

부처님은 초전법륜을 시작한 이래 45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은 불제자의 의무이자 속제로 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포교 성과는 늘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가운데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포교대상인 가족 포교는 현저히 떨어진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길을 끈다.

구립 21일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연구실장 정호)이 개최한 '2009 수도권 사찰 포교역량조사 세미나'에서 '사찰신도의 수행의식과 포교연관성'을 주제로 발표한 박경희 교수(수원대학교 전자과)는 '불교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가족의 영향이 48%로 가장 높지만 불자의 가족 종교 현황에서 종교를 믿지 않고 있는 비율은 부모님 18%, 배우자 33%, 자녀 41%로 가족의 종교 영향이 줄어들었다'며 '각 사찰에서 가족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이나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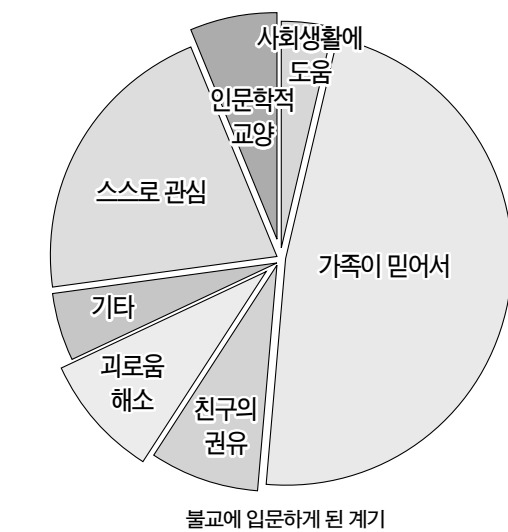
이러 박 교수는 "포교 사업을 거창하게 구성하기 보다는 내 가족에 대한 포교, 이웃에 대한 포교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찰에서는 포교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신도 스스로 포교 원력을 세울 수 있도록 신도 교육에 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의 조사 내용 중 '주변 사람에게 불교를 믿도록 권해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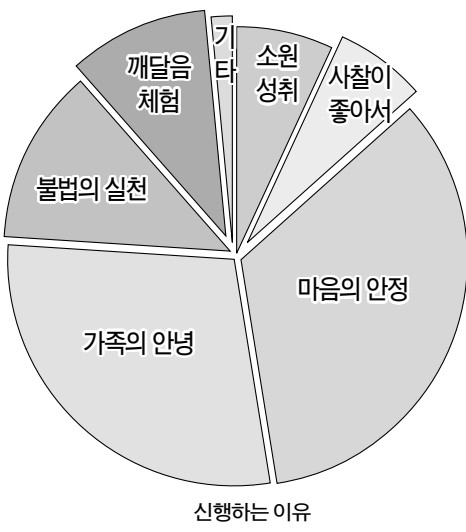
정도가 해봤다고 답했지만 실질적으로 불교에 입문하게 된 계기에서 주변의 권유에 의한 입문은 7% 내외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사찰 신도들이 포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고 시도는 해왔으나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며 "포교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포교를 굳건한 원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학과)의 '2009 수도권 포교역량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남전 스님(포교원 포교국장)은 "법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와 청소년 등 온 가족이 참여하는 법회가 필요하다. 소규모 사찰을 위한 가족 법회 등에 대한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심지역의 사찰에서 실현 가능한 가정법회, 가족들 전체 상담 등 여러 측면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사찰 중에서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은 20% 수준으로 일부 대형 사찰을 제외하고 법회 참석 인원이 10~20명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이웃에 대한 포교실천 방안은 제시해야 한다"며 "사찰에서는 포교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신도 스스로 포교 원력을 세울 수 있도록 신도 교육에 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교에 입문하게 된 계기



신행하는 이유

주장도 제기했다. 수행활동 역시 가족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찰에 소속된 불자들은 '마음의 안정'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수행 생활을 한다는 답변이 63%를 차지했다. 그 밖에 '불법의 실천'이 12.5%,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의 체험이 10%를 차지했다. 김영일 포교원 차장은 토론에서 "건강한 신체와 편안한 마음, 화목한 가정은 불교 또는 종교, 스님, 불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야 하는가를 과제로 던져준 조사결과"라며 "아주 사소해 보이는 듯 한 불자의 고민과 관심을 지극히 당위적인 논리나 고답증등의 교리적 권위로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행에 따른 포교 역량 포

한 다르게 나와 눈길을 끈다. 불자들의 수행활동은 수행, 백종기도와 염불·독경·주력이 각 19.6%, 예불 16.3%, 절 수행 14.2%인 반면 참선 명상은 7.2%로 낮게 나타났다. '염불, 독경, 주력'을 주로 하는 집단은 포교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컸다. 반면 참선·절 수행을 위주로 하는 그룹은 포교를 전혀 안했다는 대답을 가장 많이 했다. 그 밖에도 교육이 심할수록 교리적 지적 호기심에 매몰돼 포교 활동성이 떨어진다. 박 교수는 "포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종교의 모든 구조나 조직 체계는 포교를 중심으로 구성 돼 있는가? 주지인사, 사찰의 재산관리, 논의와 결정 체계 등 모든 것이 '수행과 전법'을 위해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이상연 기자

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87%가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다'고 답했지만 '법법에 따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60%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응답해 불법을 삶에 적용 하는데 어려워 한다는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김영일 차장은 토론에서 "불교가 가장 친근하고 호감 있는 종교로 뽑히면서도 실제 불자 증가나 사회적 영향력이 일치하지 않는 불교의 현실을 나타낸다"며 "포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종교의 모든 구조나 조직 체계는 포교를 중심으로 구성 돼 있는가? 주지인사, 사찰의 재산관리, 논의와 결정 체계 등 모든 것이 '수행과 전법'을 위해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이상연 기자

## 1000 뉴스

###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신규사찰 접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월 11~19일 2010년 템플스테이 신규운영사찰 신청 접수를 받는다. 템플스테이 사업 운영 사찰은 20인 이상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당, 강의실, 숙소와 화장실, 세면장을 시설을 갖추고 전문 인력,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되는 등의 기본적인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02)2031-2022

### 조계종 포교원 포교사 고시 응시자 모집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충)은 1월 20일까지 제15회 일반포교사 고시 응시자를 모집한다. 응시자는 1월 11~20일까지 응시원서, 수험료, 자기소개서 등 신도전문 교육기관, 불교대학 교학처, 포교원 등에 접수하면 된다. 포교사 고시는 2월 21일 서울 동국대 등 전국 8곳에서 시행된다. (02)2011-1894

### 불교생명윤리위 "동대 약대 설립 재단 참여"

정부의 신설 약학대 발표가 1월에서 2월로 미뤄진 가운데 불교생명윤리연구소(소장 진관, 이하 연구소)가 "동국대의 약학대 유치에 동국대 재단이 가장 정면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1월 6일 성명서에서 "동국대에 약학대학이 들어서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불교가 책임진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며 역사여래불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이라고 강조했다.

### 병무청 19일부터 불교 군중부서관·병 모집

병무청은 육해공군 불교 군중부서관과 군종병 모집일정을 발표했다. 육군 군중부서관은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능 하다. 육군 군종병은 3차례에 걸쳐 모집하며 2월 1일~16일 1분기 모집(6명 모집)을 시작으로 5월 3일~18일, 8월 2일~16일 총 1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육군 군종병은 2010년 1월 13일까지 총 4명을 모집하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 포항불교사암련 16일 1080배 정진 법회 봉행

포항불교사암련(회장 종문)은 1월 16일 오후 2시 포항신내체육관에서 포항지역 30여개 사찰과 10여개 수행단체 스님과 불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와 종교간 화합을 기원하는 '제5회 화합으로 하나 되는 세상, 1080 정진 대법회'를 봉행한다.

### 종단합 한국불교 소개책자 '한국불교' 출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가 G20정상회의 등 세계인의 한국 방문을 예상해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안내책자 <한국불교(Korean Buddhism)>를 출간했다. 사진과 자료를 통해 한국불교의 수행과 의식 등을 담은 안내책자는 해외사찰 및 템플스테이 사찰을 중심으로 무료배포 될 예정이다. 종단협의회는 "한국불교에 생소한 영미권 독자들에게 간혹선 등 수행과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 한국불교사 및 사찰 안내 등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 새터민 100명 불자로 거듭나 포교사단 하나원서 수계식 봉행

안성 하나원 새터민에서 100여 명이 불자로 거듭났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임희웅) 통일본과 통일 2팀(팀장 홍성란)은 1월 3일 안성 하나원에서 전한 만일사 주지 마가 스님을 계사로 불자 교육생 수계식을 봉행했다. 마가 스님은 법문에서 "오계를 잘 지킬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실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며 "날씨가 춥다고 겨울을 잘 견디지 못하면 봄에 꽃을 피우지 못하듯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교육생은 "아직 불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님 말씀처럼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진실



안성 하나원 새터민 교육생들 전원이 한복을 입고 수계식을 봉행했다.

되게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 봉은사 신도회 발대식서 재정공개

강남 봉은사주지 명진은 1월 7일 보우당에서 불기 2554년 신임 신도회장 이·취임식 및 신도회 발대식을 봉행하고 봉은사 2009년 재정 등을 공개했다. 이날 취임한 송진 신도회장은 "봉은사는 3년간 재정공개와 주지 명진 스님의 천일기도 등으로 청정도량으로 거듭났다"며 "한국불교 중흥의 중심도량으로 더욱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명식에서 명진 스님은 "스님들은 수행과 기도에 전념, 신도와 종무원들이 행정을 전담하는 이상적 도량이 되도록 일치단결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봉은사는 2008년 대비 10.8% 증가한 116억 7000여만원의 2009년 재정수입액을 공개했다. 노덕현 기자

### 동방불교대학 2010학년도 「역경학과」(2년제) 개설 및 신입생 모집 안내

본교는 한역불전의 올바른 번역과 이해를 통하여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기성종도들의 재교육을 신화·활성화함은 물론 불교교리의 현대화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역경지도자를 양성한다. 이를 위하여 금번 2010학년도부터 「역경학과」(2년제)를 개설·운영합니다.

역경(譯經)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전, 즉 경·율·론 삼장(三藏)을 현대적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일컫습니다. 금번 본 대학의 「역경학과」 개설은 본 대학을 졸업한 동문을 비롯하여 본 종단의 기성종도와 그에 준하는 출·재가불자들이 대상으로 불전번역의 진수를 배우고 익혀 졸업과 동시에 한역불전의 체계적인 번역과 불전사상의 집중적인 탐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근본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태고종단은 물론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본 대학이 중점교육의 지표로 삼아 새롭게 개설한 「역경학과」의 첫 주역들을 선발하고 있는 바, 인연있는 분들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다립니다.

구분	날짜	장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09. 12. 28(월) ~ 2010. 2. 18(목)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 -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0. 2. 18(목) 18: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전형(면기·실기·면접)	2010. 2. 19(금) 10:00 ~ 17:00	• 본교 강당 및 경의실
합격자 발표	2010. 2. 22(월) 14: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 II. 지원자격

- 모집대상은 출·재가불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단, 출가자는 본 종단의 합동수도수계자 교육이수자의무를 충족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재가불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이어야 한다.
- 정규반과 통신반을 공히 함께 모집한다. 통신반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로 학습한다.

#### III. 교육과정 \* 전공필수과목은 1과목당 2차시(200분) 연속 집중강의

과정	학기	1-1	1-2	2-1	2-2
교양필수		불교개론	종교	비교종교학	대승사상론
전공필수		한자학	불전한문법	역경강해	불전선독 I
역경연습 I		역경연습 I	역경연습 I	조사어록·선시특강	
신행공통(필수1과목)		신행심수·출세교육	신행심수·출세교육	신행심수·출세교육	신행심수·출세교육

#### IV. 교과목해설 \* 교양필수과목은 기존 교과목해설에 준함

한자학 : 한자의 생성원리와 형태(음·훈·의)의 변천을 연구하여 한문문장의 해독능력과 함께 궁극적으로 불문번역을 이해하도록 한다.

역경연습 I, II : 한역문장의 어휘·음·어·문법·구조 등을 중심으로 불전의 정확한 한글번역을 모색하는 취지로 관련문헌의 역경을 집중 연습한다.

불전한문법 : 불교한문의 일반상식과 한역경전의 특색을 습득하기 위한 체계적인 문법학습을 통해 불전읽기와 사상의 이해를 돕는다.

역경강해 : 한역불전을 선행하여 여러 번역본과 대조 탐독하면서 이를 통해 부처님 설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문원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불전선독 I, II : 한역불전을 선행하면서 한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독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불전이 있는 사상과 철학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조사어록·선시특강 : 한국과 중국의 조사어록 및 선시를 선별하여 강독·연구한다. 조사어록의 번역습득을 통해 출가수행자가 지나야 할 근본정신과 깨달음의 이르는 수행의 바른 길을 이해하고 나아가 불교문화적 가치를 집중 강령하면서 그에 내재되어 있는 불교의 제소수들을 살펴본다.

#### V. 교수진

한자학 : 안재철(제주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역경연습 I, II : 김수임(제주대 철학과·중문과 외래교수/태고종 교육위원장)  
 불전한문법 : 안재철(제주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역경강해 : 김수임(제주대 철학과·중문과 외래교수/태고종 교육위원장)  
 불전선독 I, II : 박상준(동국대 한국불교전서 연구사업단 전임연구원)  
 조사어록·선시특강 : 박상준(동국대 한국불교전서 연구사업단 전임연구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온·오프라인 공통)을 참조하거나 교학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TEL: (02) 745-2030 ~ 2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동방불교대학 2010 신입생 모집요강

#### I. 사정원칙 및 유의사항

-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회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단, 역경학과는 출가자의 경우 본 종단의 합동수도수계자 교육이수자의무를 충족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재가불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이어야 한다.
- 불교학과·승가학과·역경학과는 정규반과 통신반을 선택 지원할 수 있다.
- 본 종단의 합동수도수계선임을 통해 사미(尼)계를 수지한 예비승려가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역경학과 제외)을 이수해야 구주계 수지자격(정식 승려증 발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상기 ②의 의무사항을 충족한 본 종단의 기성승려가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선택 또는 종택법계를 흡수한다.
- 모든 학과의 신입생은 매년 학년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종단의 합동수도수계선임 기에 따라 후기입학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 본교는 한국불교대학교 설립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정부부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 II.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통신반
승가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통신반
역경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통신반
법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00명	3년제	정규반

#### III. 전형일정

구분	날짜	장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09. 12. 28(월) ~ 2010. 2. 18(목)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 -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0. 2. 18(목) 18: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전형(면기·실기·면접)	2010. 2. 19(금) 10:00 ~ 17:00	• 본교 강당 및 경의실
합격자 발표	2010. 2. 22(월) 14: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 IV. 전형료

- 불교학과 / 승가학과 / 역경학과 : 50,000원
- 법패학과 / 불교미술학과 : 60,000원

#### V. 특전

- 본 종단의 합동수도수계선임을 통해 사미(尼)계를 수지한 예비승려가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역경학과 제외)을 이수하면 구주계 수지자격(정식 승려증 발급자격)을 부여받는다.
- 상기 1항의 의무사항을 충족한 본 종단의 기성승려가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선택 또는 종택법계를 흡수한다.
- 불교학과·승가학과 졸업생에게는 학장이 발행하는 불학사(佛學士, 출가자 또는 교학사(敎學士, 재가자의 학위를, 역경학과 졸업생에게는 학장이 발행하는 역경사(譯經士, 출·재가자 구분 없음)의 학위를 수여한다.
- 법패학과 졸업생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 모든 학과 졸업생에게는 태고종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 법패학과 2학년생은 본교가 개설·운영하는 법패제수리기술자 자격시험(과거고시) 등에 대비한 특강을 등록·수강할 수 있다.
- 성적우수자에게는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 자세한 모집요강은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TEL: (02) 745-2030 ~ 2 FAX: (02) 744-3461  
 홈페이지 www.dongbang.org